한화투자증권

2026년 1월 28일
디지털자산

디지털자산

스테이블코인, 전통 금융 인프라 정산 수단 채택

▶ Analyst 김유민 yumin.kim@hanwha.com 3772-7392

NYSE 는 미국 상장 주식 및 ETF 를 토큰 형태로 거래·정산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단순히 거래 대상의 확장이 아니라, 달러 스테이블코인 및 토큰화 예금을 결제·증거금·자금 이체 수단으로 채택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이 암호화폐 시장을 넘어 주식, ETF 등 전통 금융 자산의 결제 레일로 수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NYSE 외에도 실시간 정산과 자동화된 리스크 관리가 요구되는 미래의 모든 온체인 기반 시스템에서 스테이블코인이 필수 인프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규제형 스테이블코인인 USDC 의 점유율 확대가 기대됩니다.

온체인 전환의 필수 인프라, 스테이블코인

1월 19일, NYSE는 미국 상장 주식, ETF를 토큰 형태로 거래, 정산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발표의 핵심은 24/7 상시 거래 및 정산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 예금을 주된 결제 수단으로 도입한다는 점이다.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주식, ETF 같은 전통자산의 토큰 거래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레일로 채택되기 시작했다. 24/7 시장을 열면 스테이블코인을 정산 수단으로 도입할 수밖에 없다. 전통적인 미국 주식 시장은 결제 주기(T+1) 단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행 영업시간의 제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금 조달, 마진 확보, 결제 처리가 은행 운영 시간에 종속됨에 따라 주말이나 야간에는 담보 이동이 지연되거나 차단되는 한계가 존재한다. 거래는 가능해도 결제, 청산이 끊기면 미결제 포지션이 누적되면서 시스템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다. 24/7 거래 플랫폼이 정상 작동하기 위해서는 자금 역시 연중무휴 이동해야 하며, 자산과 대금의 동시결제(DvP) 및 실시간 마진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이러한 요구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화폐 수단은 스테이블코인이 유일하다.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온체인 거래 프로세스

- **사전 자금 준비: 24/7 유동성 확보**

기존의 T+1 결제 체계에서는 브로커의 신용공여와 증거금 관리가 은행 영업시간 내에 제한적으로 운영됐다. 온체인 환경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및 토큰화 예금을 활용해 투자자가 계정에 자금을 계속 충전해 두는 사전 자금 준비 방식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제 불이행 리스크를 차단하고 정산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다.

- **체결: 중앙 매칭과 온체인 정산의 결합**

ICE는 기존 고성능 매칭 엔진인 Pillar를 그대로 활용할 계획이다. 거래의 효율성, 성능, 규제 감시의 용이성을 위해 주문 매칭은 중앙집중식으로 처리하고, 체결 이후 정산 과정만을 온체인화하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채택할 것이다.

- **청산 및 리스크 관리: 실시간 대응 체계**

시장 운영이 24/7 체제로 전환되면서 마진콜, 담보 이동, 리스크 계산도 실시간으로 수행돼야 한다. ICE는 클리어링 인프라를 연중무휴 대응 체제로 전환 중이며, 토큰화된 예금을 증거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리스크 관리의 유연성을 높였다. 청산소는 이미 은행, 커스터디, 결제망과 깊이 연결돼 있다. 토큰화 예금은 기존 절차를 크게 바꾸지 않고 자금 이동이 가능해 도입 저항이 낮은 편이다.

- **결제 및 수탁: 법적 권리의 동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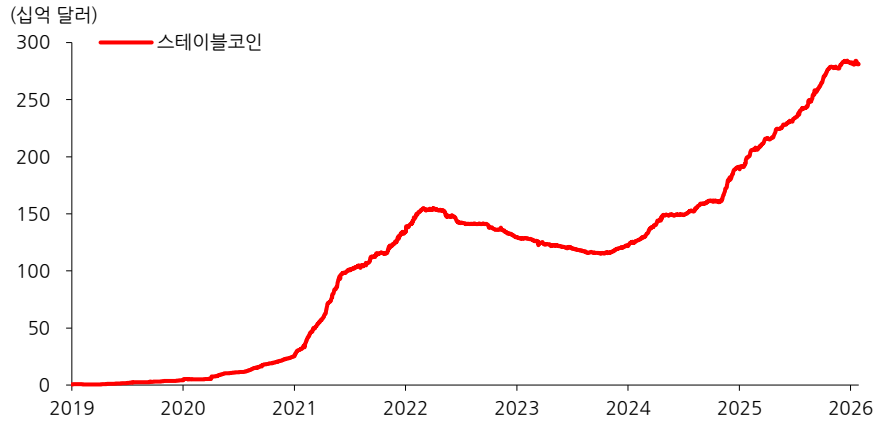
기존 상장주식을 토큰화한 경우 CUSIP 식별 코드, 잔고, 주주 권리가 온체인 데이터와 정확히 동기화돼야 한다. 처음부터 온체인에서 발행되는 네이티브 증권이면,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인프라 정립이 필요하다. 누가 공식 장부를 운영하는지, 이전대행 역할은 누가 어떻게 하는지 등 세부 규정이 관건이다.

스테이블코인 유동성 및 트래픽 증가

24/7 결제를 위한 사전 자금 예치가 필수화됨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의 대기성 잔고가 구조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ICE가 언급한 멀티체인 정산 환경에서 스테이블코인의 배포 및 정산 트래픽이 급증할 것이다. 비자가 미국 내 기관을 대상으로 스테이블코인 정산을 공식화한 것처럼, 제도권 사례가 쌓일수록 타 거래소 및 청산소로의 확산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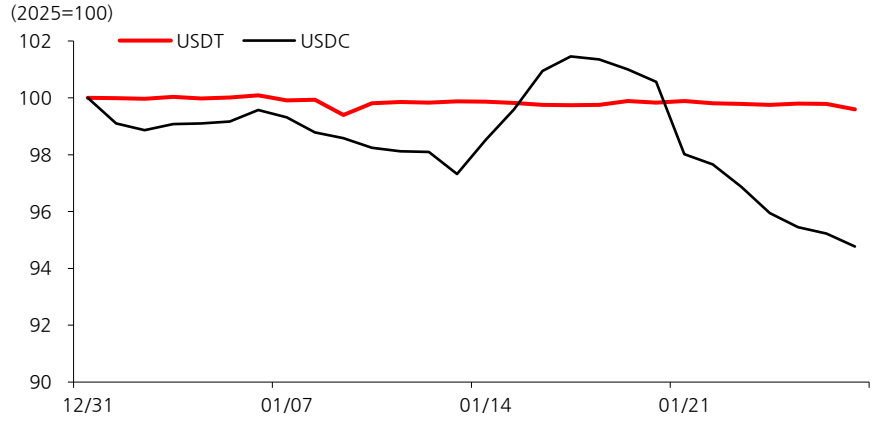
서클은 USDC를 단순한 자산을 넘어 하나의 결제 인프라로 확장하려는 전략을 추진 중이며, 이번 변화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ICE 같은 제도권 기관은 규제 준수형 스테이블코인인 USDC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직접적인 USDC 사용 외에도, 토큰화 예금을 사용하는 기관들이 국가 간 송금이나 장외 담보 활용 시 보완재로서 USDC를 채택할 수 있다. 코인베이스는 스테이블코인 발행부터 보관, 운용까지 아우르는 플랫폼으로서 가치가 부각된다. 24/7 시장 참여자들에게 필수적인 기관용 커스터디, 담보 운용, 실시간 컴플라이언스 솔루션을 제공하며 수익 모델을 다변화할 수 있다. 특히 기관들이 USDC를 담보로 대차 거래를 수행할 때 코인베이스의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가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림1]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 추이



자료: DefiLlama,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USDT, USDC 시가총액 추이



자료: DefiLlama,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공표일: 2026 년 1 월 28 일)

이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작성하였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했습니다. 본인은 이 자료에서 다룬 종목과 관련해 공표일 현재 관련 법규상 알려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인은 이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김유민)
저희 회사는 공표일 현재 이 자료에서 다룬 종목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종목 투자등급]

당사는 개별 종목에 대해 향후 1 년간 +15% 이상의 절대수익률이 기대되는 종목에 대해 Buy(매수)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한 절대수익률 -15~+15%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Hold(보유) 의견을, -15% 이하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Sell(매도) 의견을 제시합니다. 밸류에이션 방법 등 절대수익률 산정은 개별 종목을 커버하는 애널리스트의 추정에 따르며, 목표주가 산정이나 투자의견 변경 주기는 종목별로 다릅니다.

[산업 투자의견]

당사는 산업에 대해 향후 1 년간 해당 업종의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에 비해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Positive(긍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1 년간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과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Neutral(중립적) 의견을, 과거 수익률보다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Negative(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산업별 수익률 전망은 해당 산업 내 분석대상 종목들에 대한 담당 애널리스트의 분석과 판단에 따릅니다.

[당사 조사분석자료의 투자등급 부여 비중] (기준일: 2025 년 12 월 31 일)

투자등급	매수	중립	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중	87.0%	13.0%	0.0%	100.0%